

# 최저임금에 명운건 文의 장관들, 싸늘한 민심 되돌릴까

김동연 부총리, 자금집행·홍보 등 점검  
백운규 장관, 반월산단 현장 목소리 청취  
“소득주도 성장 구현에 필수 사항” 호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가좌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현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보다 널리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서도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과 현장홍보 상황을 점검했다.

가좌 진주2단지아파트는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청소원 해고나 휴게시간 확대 등 편법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리비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김 총리가 이날 가좌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한 이유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장애인 등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의식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직원 해고와 품수 임금 인상 등 사업주들의 갑질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경영계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미용실, 주유소와 같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만큼 정부 방침대로라면 영세 사업주의 80%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사항으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및 고의 여부 등이 모두 확인되고 그것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돼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이 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자 일각에서는 장애인 및 청년 인턴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 근로 소득 확충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모두 가능하게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보름 정도 지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각 부처별 현장 소통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연일 부처 수장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최저임금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

또한 최근 최저임금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최저임금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장관들이 직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며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소재 금형기업인 ㈜이레몰드를 방문해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고용주 “최저임금 인상에 폐업까지 고려”

알바생 축소 등 77% “고용 악영향”  
48%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

아르바이트 직원을 뽑는 고용주나 전주 10명 중 약 8명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고용주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과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은 전주와 고용주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은 ‘기존 알바생 축소 고려’(21%)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 축소’(19%), ‘신규 채용 취소’(18%), ‘가족 고용’(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는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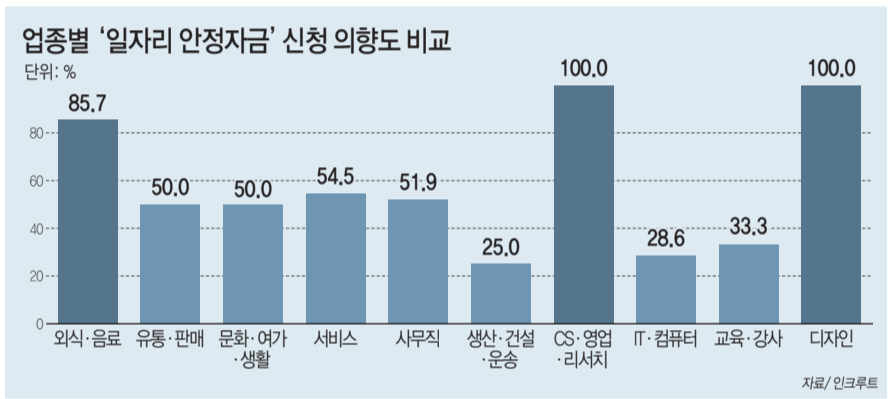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봉 동결’, ‘원가 상승 압박’, ‘단가 인상’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가운데, ‘폐업 고려’를 꼽은 업종은 외식·음료 업종이 가장 많았

고, ‘알바생 축소’와 ‘가족 고용’은 유통·판매업종에서, ‘신규 채용 취소’는 문화·여가·생활업종에서,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는 58%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대체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계획을 묻자 48%는 ‘그렇다’고 했지만, 23%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청 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34%), ‘대출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 적용’(8%) 등을 들면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가 밝힌 가장 큰 이유로는 ‘점

주와 알바생의 사회보험 가입비용 증가’라는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 ‘점주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알바생 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10%)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용수 기자 hys@】

## 급성 인플루엔자 A형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인플루엔자 A형 감염 환자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 자격 요건

-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 시험 약 투여 전 48시간 이내 질환 발병한 대상자(체온이  $\geq 38.0^{\circ}\text{C}$  또는 호흡기 및 전신 증상 발병 대상자)
- ▶ 참여불가:
  - 인플루엔자로 항바이러스 치료 또는 연구 참여 전 14일 이내 항바이러스제 투약력이 있는 자
  - 연구 참여 전 21일 이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자
  - 현재 B,C형 감염 또는 HIV 감염 대상자

### 연구 절차

- ▶ 선별검사 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 본 연구에 등록 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치료제 1회 투여 및 채혈 등의 기본 검사 진행.
- ▶ 약 110일의 기간 동안 7-10회의 방문 (상황에 따라 3일간 입원도 가능함)

### 참여 혜택

- ▶ 임상시험 기간 동안 전문 교수진의 집중적 진료 및 관리
- ▶ 임상시험의 모든 검사비용(혈액검사, 뇨검사 등)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 ▶ 입원비 및 소정의 교통비 등

### 실시 기관

-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고대안암병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평촌한림대 성심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 21개 기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1800-6883

※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위험(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